

장백산천지

제 331 호

2018 년 7 월 22 일

일요일

美 하원의원 결의안 발의, 탈당 물결 성원

[밍후이왕] 2018년 6월 8일, 다나 로라바처(Dana Rohrabacher)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제 932 호 결의안'을 발의해 중국 민중의 공산당 및 그 부속조직 탈퇴를 성원하고 파룬궁(法輪功) 박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중국공산당에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이미 미 연방의회 하원외교 사무위원회에 상정됐다.

결의안은, 중국공산당이 중국에서 최소한 8 천만 명을 비정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19년이란 긴 시간동안 지속되고 있는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으로 평화적인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 장기를 생체 적출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룬궁 박해 추적조사 국제조직'(추적조사국제)라고 약칭함. WOIPFG)의 조사에 의하면, 생체장기적출로 대량의 파룬궁수련생을 살해한 것은 중국공산당이 획책하고 집행한 것으로 이는 집단학살죄에 속한다. 1999년 6월 10일 설립된 '610 사무실'은 전 문적으로 파룬궁수련생 소멸을 목적으로 한 행동을 협조하고 집행하는 초법적 기구다.

2004년 11월 19일 '대기원시보'



■ 2018년 5월 9일 미국의회에서 열린 '3 억 중국인의 삼퇴 성원' 세미나에서 로라바처 하원의원은 탈당 자원봉사자와 삼퇴를 성명한 중국 민중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

는 사설 시리즈 '9 평 공산당'을 발표하여 하늘에 반(反)하고, 땅에 반하며, 사람에 반하는 공산당의 사고 본질을 폭로했다. 이로써 중국민중의 중국공산당, 공산주의청년단, 공산주의소년선봉대 조직 탈퇴를 불러일으켰다. 2018년 6월 18일까지 대기원 탈당사이트에서 '삼퇴'(중국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를 성명한 사람은 3 억 7 백만 명이 넘는다.

중국에서 일고 있는 탈당의 큰 물결은 다나 로라바처 미국 중진 하원 의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탈당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정신운동은 "사람들을 사악한 공산당 체제와 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사악한 공산당 체제 내의

사람들에게도 탈퇴할 기회를 주었으며, 그들이 더는 동포 탄압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공산당과 함께 세계의 위험이 되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

로라바처 의원은 파룬궁수련자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는 파룬궁수련자들이 지키고 있는 '진(真), 선(善), 인(忍)'의 원칙을 찬양하며, 세계에는 이런 원칙을 믿는 많은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사악한 무리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진·선·인'을 수호하는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서려면, 그들과 함께 악에 대처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밍후이왕] 2018년 7월 1일은 캐나다 151주년 국경일이다. 토론토 파룬궁 수련생들의 천국악단과 연꽃 꽃차는 당일 오전, 오후 요청을 받고 미시소가 시와 토론토시 국경절 대행진에 참가했다. 관중들은 파룬궁대오는 이 특별한 날에 아름다움과 평화를 전시했다고 찬사를 보냈으며, 무더운 날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캐나다 친척방문을 온 지 얼마 안 되는 산둥의 쉬씨는 친구와 함께 천국악단을 따라 끝까지 전부 걸었으며 흥분해서 말했다.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 파룬궁 대열이 가장 대단하고 진영이 아주 크며 바르다. 함께 따라 걸었는데 모두 환호성과 박수소리 뿐이며 엄청 환영을 받는다." ◇

박수와 환호로 떨치다



허난 공무원이 상사의 명령을 집행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계시

[밍후이왕] 2018 년 6 월 27 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허난성 융청시 정법위 서기 장(張)모는 융청시 부시장과 도시 건설국 국장에게 위탁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기요’를 작성해 개발업자에게 두 아파트 단지의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가해줬다.

개발업자는 ‘회의기요’를 가지고 융청시 도시농촌 계획서비스 센터 주임 샤밍쉬(夏明旭)를 찾아 층수를 새로 높이는 건설공사계획 허가증을 요구했다. 샤밍쉬와 당시 이 센터의 부지 계획 계장 류위웅(劉予永)은 ‘회의기요’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상급 상사의 요구에 따라 허가증을 내줬다.

그 후 저우커우덴(周口店) 중급 법원은 샤밍쉬, 류위웅에게 직권 남용죄를 적용해 처벌을 내렸다. 피고는 자신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2017년 9월 21일, 저우커우덴 중급법원은 최종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중국 언론은 공무원에 대해 농담조로 “상사의 요구를 그래도 감히 확고부동하게 집행할 수 있는가? 집행을 하지 않아 처벌받아도 어쩌면 행운일 것이다. 만약 집행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 앞날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가족에 해를 끼치게 된다. 진짜로 그때가 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상급의 명령을 집행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그런 공검법사(公檢法司,公安, 검찰, 법원, 사법) 인원들을 돌이켜보면 위법 명령을 집행해 형사책임을 추궁 받은 것이 당신들하고 거리가 먼가?

1999년, 중공 장쩌민은 파룬궁 박해를 발동한 이래 줄곧 공검법사를 조종, 이용, 장악해 범죄를 저질렀다. 중앙에서부터 줄곧 전국 가장 기층에 이르기까지 ‘중앙 문화혁명소조’와 유사한 기구를 상설해 중공 장쩌민 집단의 뒷받침과 자금을 무한정 지급받아 불법적으로 오늘까지 19년간 운행해 오면서 ‘진선인(真善忍)’을 신

봉하는 중국의 수천만 좋은 사람들을 체포, 가택수색, 생체장기적출을 감행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중국공산당의 역대 운동은 모두 희생양을 찾았다. 예를 들면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베이징시 공안국 국장 류찬신(劉傳新)이 목을 매 자살했다. 또 일부 군인들을 윈난(雲南)에 압송해서 비밀리에 처형하고 가족에게 ‘공무로 순직했다’고 통지했다.

역사의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 현명한 공검법사 인원들은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의 희생양으로 되지 말고 자신의 양심과 선념(善念)을 굳게 지키고 명석한 지혜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만약 다시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로 된다면 법이 당신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우주대법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해 저지른 범죄를 하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파룬따파 하오”를 외우면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2018년 6월 27일 오후 2시가 넘어 우리 지역에 갑자기 우박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25분 동안 지속됐다. 당시 나는 외출 중이었는데, 큰길에는 빗물이 흘러 넘쳤고, 물이 고이지 않은 곳에는 온통 우박이었다.

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도로 양쪽에 어지럽게 흩어진 나뭇가지와 죽은 새를 보았다. 바닥에는 온통 떨어진 살구, 자두, 은행열매였는데, 이것도 인간 세상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재난이다.

이튿날 낮 11시 10분, 나는 길에서 50여 세로 보이는 여성이 수레를 밀며 살구를 파는 것을 보았다. 내가 다가가 물었다. “언제 딴 살구에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상한 게 없죠?” 그녀는 오늘

일찍 딴 것이라고 했다. 내가 물었다. “그럼, 어제 우박이 내렸는데, 그쪽에는 안 내렸나요?”

내 질문에 그녀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황해서 침대에 앉아 울었어요. 올해 농사는 글렀구나. 이렇게 큰 우박이 내리니 과실이 모두 떨어지지 않을까? 한참을 우는데, 갑자기 예전에 채소를 팔 때 만났던 파룬궁 수련생이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 하오(真善忍好)’를 정성껏 외우면 재난이 복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한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울면서 ‘파룬따파 하오, 찌싼런 하오’를 외우면서 리홍쯔 대사님께 우리 집을 구해달라고 빌었어요. 우리 과수 농가가 재해를 당하면 살 수

가 없다고요. 그렇게 비가 그칠 때까지 계속 외웠죠. 제가 밖에 나가 보니 아이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집 과일이 몇 개만 떨어졌고, 떨어진 살구도 익은 것뿐이었어요. 다른 집은 온 땅바닥이 떨어진 과일로 덮였으니 신기하지 않나요?”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도 외워 보세요! 누구든 외우면 복을 받아요.” 내가 그녀에게 삼퇴를 했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했다. “파룬궁 수련생이 나한테 말해 줬을 때 실명으로 탈퇴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이것은 당신이 불법(佛法)을 믿어 이익을 얻은 것인데,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당신도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

7년 감옥살이에 있는 밤낮 13일간의 '아오잉'

[밍후이왕]나는 현행 법률에 근거해 파룬궁수련생을 중국형법 300 조에 의해 처벌하는 중공 당국의 작법에 대해 신중하게 논증했다는 이유로 저우융강(周永康)을 우두머리로 한 정법계통의 사악한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7년 징역형을 판결 받았다.

7년 옥살이 기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많은 시달림을 받아 심신의 상처가 컸다. 그들은 나를 혹독하게 구타하고, 독방에 가두고, 장기간 물품구매권을 박탈했으며, 못매질 후 연속 반달을 엄하게 관리하면서 죽만 마시게 하는 등 잔인하게 박해했다. 그 중 특히 2012년 선양(沈阳) 제1감옥에서 13일 동안 밤낮으로 당한 '아오잉(熬鷹,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 제일 잔인했다.

교육처 부처장 옌텐샹(阎天翔)이 죄수를 사주해 나의 손을 '호랑이 의자'라는 쇠의자에 고정해 놓았다. 쇠의자는 이 감옥 제18감구에서 제작한 것으로 무겁고도 견고하다. 앞의 가림막을 열고 사람을 들어가게 한 다음 가림막을 고정해 놓고 두 발목을 쇠고리로 고정하고, 두 손을 수갑으로 고정해 놓는다. 묶인 사람은 외인의 방조가 없이는 스스로 벗어 날 수가 없다.

한 죄수가 나의 오른쪽 앞면에 나를 마주하고 앉아 나를 지키면서 내가 3초 이상 눈을 감으면 곧 나를 때렸다. 첫 3일간은 나에게 밥을 주지 않았는데 배고픈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다. 가장 큰 고통은 목이 마르고, 졸음이 오는 것이었다. 나를 내리 쫓아내는 도수 높은 두 개의 전등은 더욱 목을 마르게 하는 것이었고, 죄수의 주먹과 발은 나를 잠자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대략 6일간 잠을 자지 못하자 나의 눈앞에 환각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래도 환각과 현실을 분간할 수 있었으나 후에



■ 왼쪽: 다렌 인권변호사 왕융항. 오른쪽: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형구: 쇠의자

는 분간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의 대뇌에 진정한 공백이 생겼다. 나는 사고하고, 추억하려고 애썼으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심지어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이 세상에 왔었는지도 다 생각나지 않았다. 일종 거대한 공포감이 나의 정신을 즉시 붕괴시켰다. 나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일어섰는데 수갑도 열렸다. 그들은 사전에 준비했던 천으로 나를 호랑이 의자에 묶어놓고 입에 천 뭉치를 밀어 넣었다.

그들은 이런 '아오잉' 방식으로 나를 미치게 하려 했다. 나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미치는 것이 두려웠다. 미치기만 하면 그들은 요언을 날조해 나의 믿음에 죄를 씌울 수 있다.

이번에 붕괴된 후 나는 연공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썼다. 동시에 나의 내심은 진정으로 전향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명만 하면 된다면서 진짜든 가짜든 상관 없다고 했다.

'아오잉'이 결속된 그날 저녁 나는 40.4도로 열이 나고, 호흡 곤란이 왔다. 예전에 아주 정상이던 나의 심장이 '아오잉'이 끝난 두주일간 맥박이 매분 100차를 초과했다.

'아오잉'이 끝난 후 한 달간 나는 정상으로 잠을 잘 수 없었으

며, 반은 늘 혼미상태였다.(발체)

저자소개:

왕융항(王永航)은 중국 랴오닝(辽宁)성 다렌(大连)시 인권변호사다. 가오즈성(高智晟)변호사의 공개편지 영향을 받고 파룬궁 문제와 중국인권 현재 상황을 사고하고, 2007년에 여러 차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2008년 그는 선후로 해외 따지위안(大纪元)에 연속 문장을 발표해 중공에서 소위 형법 300조에 근거해 "사교를 이용해 법률실시 파괴 죄"란 죄명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것은 위법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앙당국과 최고사법기관에 공개서신을 발표해 개정하라고 호소했다. 왕융항은 2009년 비밀리에 납치돼 7년 불법 판결을 당하고 랴오닝성 선양 제1감옥에 감금돼 있는 기간 고문당해 생명이 위급했으며 한동안 견디지 못했다. 2016년에 만기돼 출소했다.

왕융항의 정의 거행은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2012년 7월 24일, 왕융항은 미국에서 '10가 인권변호사(十佳维权律师)'상을 수여 받았으며, 중국 유명한 변호사 텡바오(滕彪)는 왕융항을 제일 용감한 변호사중의 한 분이라고 찬양했다. ◇

지린 청년 리쑹텐이 12년 전 산둥에서 박해로 목숨을 잃다

[밍후이왕] 지린시 파룬궁수련생 리쑹텐(李松天)은 2004년 9월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납치당해 다산 제2구치소에서 1년간 박해당해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했다. 그 후, 4년 불법 징역형을 판결 받고 지난감옥(濟南監獄)병원에 보내져 이른바 “치료”를 받았다. 2006년 1월 8일, 리쑹텐은 29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리쑹텐, 1976년 4월 27일 출생, 조선족, 지린성 지린시 룡탄구 장베이리자촌 사람(신분증번호: 220211197604272115). 1998년 2월 18일, 리쑹텐은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그때 심장병, 담낭염(胆囊炎), 뇌종양, 다리 통증 등 질병이 있었다. 파룬궁을 수련해 3달에 신체는 건강을 회복했다.

1999년 7월 20일 후, 리쑹텐과 그의 어머니는 공정한 말을 하기 위해 베이징에 가려고 떠났으나 현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붙들려 돌아왔다. 그 후 매일 감시를 당했다. 리쑹텐은 대략 8,9월에 그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주의하지 않는 기회를 타서 어머니와 함께 베이징 민원사무실에 갔다. 당시 민원사무실 인원은 “잘 생각해 보라 민원사무실에 들어가면 감금당하는데 두렵지 않는가?”고 물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둘이 여기에 온 것이 바로 우리 사부님을 위해 공정한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잇따라 모자는 민원사무실에 들어가 민원사무인원들에게 “우리사부님은 좋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사람을 가르칩니다. 연공을 하면 신체가 좋아집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우리사부님을 대하면 틀립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원사무실인원은 그의 말을 듣지도, 도리를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경찰한테 데려갔다. 그들이 가졌던 돈과 물품은 모두 경찰이 빼앗았으며, 룡탄구公安分局에 의해 현지 구치소에 보내져 15일간 불법감금 당했다.

2000년 12월, 리쑹텐과 고모는 2차로 베이징에 가 청원했다. 그들은 텐안먼에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 잔혹한 박해로 사망했거나, 참혹한 고문혹형을 받은 일부 조선족 파룬궁수련생들의 사진.

파룬따파는 좋다), 찌찌런 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다)’란 현수막을 펼치다가 납치됐다. 리쑹텐은 불법감금기간 단식으로 항의했는데 경찰은 그를 죽게 때려 혼미상태에 처해서야 구타를 멈췄다.

베이징에서 감금된 지점은 상세하지 못하다. 한 달 후 리쑹텐은 지린에 보내져 지린시 서산파출소에 감금됐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구치소에 가 봤는데 한 달 동안 리쑹텐의 85 kg이던 체중이 50 kg으로 줄었으며, 극도로 허약해졌다. 신체검사결과 심장병이 엄중해 보석치료로 석방돼 지린 집에 돌아왔다.

2001년 5월, 리쑹텐과 어머니는 또 가택에서 납치돼 지린시 장베이 진주세뇌반에서 연공을 포기하라는 핏박을 당했다.

2003년 9월, 리쑹텐은 칭다오시 한 회사에 출근했다. 파룬따파 진상을 알리다가 고발당해 불법으로 집을 수색 당하고, 컴퓨터를 몰수당하고, 15일 불법 구류 당한 뒤 칭다오시 쓰팡법원에서 4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리쑹텐이 다산(大山)제2구치소에 1년 감금당해 있는 동안 체중이 50 kg도 안 되게 내려

갔다. 신체가 극도로 허약해져 2004년 11월경에 지난감옥병원에 보내졌다.

반년이상의 이른바 치료를 통해서도 효력을 보지 못하고 리쑹텐은 생활 자립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병세가 악화됐다. 지난시 610 판공실 책임자 징타오(景涛)는 책임이 두려워 감옥 측에서 도장을 찍고 가족에게 통지해 사람을 데려가는 것을 동의했다.

그때 리쑹텐은 이미 생명위험이 있었기에 사람이 감옥에서 사망하는 것이 두려워 급히 비행기로 지린에 보냈고 지린에서부터 훈춘에 있는 집까지 차로 실어왔다. 2005년 5월 5일, 리쑹텐의 어머니가 아들을 만났을 때는 이미 원 모색이 없었다. 몸은 여위고 작은데 간 복수로 배만 부풀어 있었다.

이로부터 리쑹텐이 불법감금기간 어떤 구타를 당했는지 상상할 수 있다. 리쑹텐의 어머니는 생명이 위독한 아들을 보고 너무나 비통했다. 비참한 상봉은 사람을 눈물 흘리게 했다. 2006년 1월 8일, 리쑹텐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